檀紀四二八八年三月一八日
第三種郵便物認可

第三十回 國會定期會議速記錄 開會式 國會事務處

第三十回國會(定期會)開會式

一、日時 檀紀四二九一年九月一日(月)上午十時

二、場所 國會民議院議事堂

三、開會式順

1. 開會
2. 國旗에 對한 敬禮
3. 愛國歌奉唱
4. 式辭(議長)
5. 致辭(大統領)
6. 萬歲三唱(副議長)
7. 閉會

(司會 徐商俊 總務局長)

(上午十時 開式)

○總務局長(徐商俊)지금으로부터 第三十回國會 開會式을 擧行하겠읍니다

國旗에 對하여 敬禮가있겠읍니다 起立해주십시요

(國旗에 對하여 敬禮)

다음은 愛國歌奉唱이 있겠읍니다

(愛國歌奉唱)

着席해 주십시요

다음은 議長께서 式辭가 있겠읍니다

○議長(李起鵬)

開會辭

우리는 지난八月二十七日第二十九回臨時國會를 閉會하고 오늘 다시 二次로 第三十回定期國會를 開會하게 된것입니다

지난第二十九回臨時國會에서는 四二九一年度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通過하였거니와 本 第三十回定期國會에서는 四二九二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審議하는 보다 重大한 任務를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이重大한 國事를 審議하는데 있어 우리가 힘쓰고자 하는것은

첫째로 與野의 緊密한 協助와 寬大한 互讓의 雅量으로 臨함으로써 不必要한 政爭을 止揚하자는것입니다

本人이 前者에도 말하바 있거니와 우리가 漸次 兩黨政治의 基盤이 잡혀가고 政黨政治의 具現을 보게되는것은 同慶하는 일이지마는 與野相互間에 協助와 雅量이 不足함으로써 過酷한 政爭을 惹起하여 왔던것입니다

우리들 二三三名이 三千萬의 代辯者인 聖職을 지니고있는 身分이라는것을 잊지 않는다면 敵아닌 同志들끼리 多少의 意見差異가 있다고하여 流血의 亂鬪가 있을수 없는 일이요 이러한 行動을 政治活動이라고 誤認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인것입니다

우리가 建國初에는 오랜 日帝壓政에서 벗어난 直後이라 議政生活의 眼目이 未及하고 疎忽한 點이 적지 않았으나 十年歷史의 貴重한 經驗을 通하여 이제 모든 國民은 政爭의 是非를 透徹하게 判斷할 能力이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할 相對者가 있다면 그것은 共產徒輩일것이요 같은 國憲아래에서 國事를 論議하는 同志들은 아닐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나친 政爭이 國民士氣에 影響을 끼치거나 敵으로 하여금 間隙을 엿볼수 있는 機會를 주어서는 아니되겠읍니다

둘째로 이번 豫算國會를 通해여 經濟의 安定과 民心의 安定과 나아가서는 政局의 安定을 圖謀하도록 서로가 힘써야하겠읍니다

지난 臨時國會에서 公務員의 處遇改善의 通過되었거니와 이 實行에 있어서 與野는 勿論이요 國民 全體의 協調와 努力이 要求되는 것입니다

이機會를 利用하여 一部 沒知覺한 者들의 輕擧妄動과 惡質 謀利輩들 等의 跳梁으로 物價가 騰貴하여지고 換率의 維持가 困難하여진다면 모처럼 公務員處遇改善도 無意味한것이 되고 말것이요 이에 따르는 國民의 苦痛도 또한 클것입니다

뿐만아니라 近間 漸次 물이 잡혀가고 있는 基幹産業의 育成과 中小企業體의 育成이 흔들리게 될것입니다 쓸데없는 風波를 惹起시켜서 政局을 어지럽게하고 民心을 騷擾하게 하는일이 없도록 格別한 留意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세째로 農村의 振興을 꾀하며 農民의 生活苦를 早速히 없이할 方途를 講究實踐하여야 하겠읍니다日帝時節에는 春窮期가 되면 農村에는 칡 뿌리와 나무껍질로 延命하는 家口가 不知其數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를 回顧하면 農村生活의 向上은 天壤의 差가 있다고하겠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農民이 生活苦를 免할 境地까지는 遼遠한 感이 없지않습니다 特히 不合理한 高利債에 허덕이는 農民들에게 完全한 債務整理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早速한 時日內에 低利債로 바꾸어 줄 方途는 講究하여야할것입니다

또 아직도 여러 모로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있는 우리 農村의 振興策을 爲하여 誠意있는 研究와 討議가 있어야 할것으로믿는 바입니다 다음은 國際情勢에 至大한 關心을 가져야 하겠으며 이에 對應할 萬般策을 講究함과同時에 恒時 緊張과 留意를 게을리 하지말아야 하겠읍니다 中東事態의 緊張이 풀리지 않은채 다시世界의 注目은 臺灣海峽으로 옮겨지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銘心할것은 어디서 무슨事態가 벌어지든지 그根本 原因은 한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할必要도 없이 그것은 共産徒輩들의 侵略企圖로 말미암아 誘發되는 問題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國防은 軍人들만이 하는것으로 믿어왔고 또 事實 그러하였거니와 오늘의 國防은 國民全體의 責任이요 前方도 後方도 없다는 事實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與野의 緊密한 相互協調와 互讓의 너그러운 雅量으로 이번 國會가 아름다운 結實을 가져올수있기를 懇切히 付託드리며 또 國民들앞에 眞摯한마음으로 憂國衷情을 다하여 이번 國會에 臨할것을 盟誓하면서 이로써 第三十回 定期國會의 開會辭를 삼고자 하는 바입니다

檀紀四二九一年九月一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總務局長(徐商俊) 다음은 致辭가있겠읍니다

○外務部長官(曹正煥)

대통령 치사

제三〇회 국회정기회의 개회식을 당해서 간단한 말로 치사하고저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토의와 변론등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 국회개원 이후로 지금까지 잘되어 왔으며 그중에 다소간은 모든 개인에게 다 충분한 결과를 주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이만큼 회기를 치르고 다시 제三〇회 국회를 개회하게 되는것을 여러분들에게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일중에 잘 된것만을 생각하고 잘못된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에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진전해나가는데 도움이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것은 국회에 대해서 취고먹자 하려는 악의로 하는말이 아니고 서로가 권고하는 뜻으로 앞에일을 잘 해나가자는 욕망에서 하는 말인줄 알아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행정、입법、사법각부에 있어서 한가지 제일큰 목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공헌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안목에 영광스럽고 표준이 될만한 일을 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하는것을 표준삼지 말고、남이 잘하는것을 모범해서 지나간 四〇년동안에 우리가 사람 노릇을 못한것을 통분히 여겨가지고 다같이 일을해서 그것을 씻어버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랴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간말은 아니하겠으나 우리가 앉아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다는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잘만한다면 빛나는 이름이 역사에 오로게 될것이고 그러지 않고 잘못되면 전민족과 나라는 수치스러운 광경을 당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자랑하는 민족이며 고대부터 예의지국으로서 남에게 낮은 대우는 받지 않겠다고 싸워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와 명망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지위를 욕되게 하는일이 없어야만 되며 대한민국의 존귀한 존영을 손실시키는일이 있어서는 아니될것이니 국회의원의 전체는 각개인이 잘하고 잘못하는것을 막론하고 실수하는 것이나 범과하는것이 없도록 각자가 다 굳은 결심을해야 될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질지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국가의 지위와 영예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만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통과 참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나라의 안위와 광영을 위해서 노력분투 하여야만 될것이니, 앞으로 더욱 분투해서 우리국민의 행정、입법、사법의 세기관이 만사에 합심합력으로 국부병강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것입니다 또 우리 각개인이 제일크고 거룩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민국은 날로 진전되어 더욱 복스럽게 되어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모든 복리를 축복하며 이번회기에 많은 성공이 있기를 바라는바입니다

단기四二九一년九월一일

대통령 리 승 만

(代讀 曹 正 煥)

○總務局長(徐商俊)萬歲三唱이 있겠읍니다

(李在鶴副議長의 先唱으로 萬歲三唱)

이것으로써 第三十回 定期會 開會式을 끝마치겠읍니다

(上午十時二十分 閉式)